

1%의 한국 '다윗의 기적' 을 보여줘

내일밤 11시 FIFA 1위 독일과 일전 최소 2점차 이상 이겨야 16강 가능성 대표팀 "공은 등글다...포기란 없어"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전력을 다해 싸웠던 2018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멕시코전이 결국 1-2 패배로 끝난 후 그라운드는 눈물바다였다.

골을 넣고도 웃지 못한 손흥민(토트넘)과 자신의 실수가 뼈아팠던 장현수(FC도쿄), 놓쳐버린 득점 기회가 자주 생각난 황희찬(잘츠부르크)까지 모두 눈물을 쏟아냈다.

베야폰 2연패를 당했을 때만 해도 16강 탈락은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후 독일이 스웨덴을 잡으면서 한국에도 희망이 되살아났다. 거의 포기했던 상황에서 후반 추가시간 극적인 독일의 역전골로 살아난 불씨 덕분에 대표팀에게나 축구팬에게나 더 소중하게 다가왔다.

그야말로 '실낱' 같은 희망이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57위인 우리나라는 오는 27일 오후 11시 카잔 아레나에서 열리는 조별리그 최종 3차전에서 랭킹 1위 독일을 상대로 넉넉한 점수 차로 승리해야 한다.

그것만으로도 쉽지 않은데 멕시코가 스웨덴을 잡아주기도 기다려야 한다.

같은 시간에 열리는 멕시코-스웨덴전의 결과는 어쩔 수 없으니 대표팀으로서는 최선을 다해 독일과 싸우는 수밖에 없다.

비록 독일이 1차전에서 멕시코에 0-1로 패하며 우승 후보 체면을 구기고, 스웨덴전에서도 2-1 신승을 거두는 등 예상외로 빠격대는 모습을 보여준 있지만 하지만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절대적인 우세다.

하필이면 세계랭킹 1위와의 경기에 운명이 걸린 앞글은 상황에 부닥쳐버렸다.

외부의 전망은 냉정하다.

미국 통계분석업체 파이브서티에이트는 조별리그 2차전이 끝난 상황에서 F조에서 한국이 16강에 진출할 확률을 1% 미만으로 예측했다.

아직 16강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확률이다.

F조에선 스웨덴을 잡으며 반등한 독일이 87%로 가장 높고 멕시코가 72%, 스웨덴이 40%다.

도박사들도 독일의 승리에 압도적으로 손을 들고 있다.

그렇지만 물러설 데 없는 대표팀은 1%의 가능성이라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멕시코전 다음날인 24일(현지시간) 곧바로 독일전 준비에 나선 수비수 홍철은 "1%의 희망이 있는 만큼 포기하지 않겠다. 독일과 우리는 똑같은 상황이고 공은 등글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신태용 대표팀 감독도 "독일이 왜 랭킹 1위인지 알아야 한다"면서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잘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태극전사들은 독일전에서 전통의 붉은색상의 유니폼을 입고 뛰었다.



"우린 할 수 있어" 2018러시아월드컵 한국대표팀은 오는 27일 러시아 카잔아레나에서 독일과 예선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우리나라가 독일을 2점 차 이상으로 꺾고, 멕시코가 스웨덴을 2골 차 이상으로 이기면 한국의 16강 진출이 가능할 수도 있다. 사진은 손흥민(가운데)이 지난 23일 오후(현지시간) 러시아 로스토프나노두 로스토프아레나에서 열린 2018 러시아 월드컵 F조 조별리그 2차전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후반 막판 만회골을 터뜨린 뒤 황희찬(왼쪽), 이승우와 함께 동료들을 격려하는 모습. /연합뉴스

메시 "은퇴 못해"

"우승컵이 꿈" 은퇴설 일축

아르헨티나 축구 대표팀의 간판 공격수 리오넬 메시(31)는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기 전에는 은퇴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대표팀 은퇴설을 일축했다.

영국 일간지 미러는 25일 메시가 아르헨티나의 16강 진출 운명을 가를 나이지리아전을 앞두고 월드컵 우승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메시는 "월드컵은 아르헨티나에 특별하고, 나 역시 마찬가지다.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꿈을 항상 꿴다"며 "월드컵 우승은 전 세계에 사는 아르헨티나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꿈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메시가 이끄는 아르헨티나는 2018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아이슬란드에 1-1로 비긴 데 이어 2차전에서는 크로아티아에 0-3으로 패하며 자존심



을 구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에는 아직 16강 진출 가능성이 남아 있다.

아르헨티나가 27일 오전 3시에 열리는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나이지리아를 이기고, 크로아티아가 아이슬란드를 꺾으면 16강 진출 티켓을 가져간다.

만약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두 팀이 함께 이길 때에는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가 나란히 1승 1무 1패가 돼 골득실차, 다득점, 페어플레이 점수 등을 따져야 한다.

실사 이번이 16강 진출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메시는 2022년 카타르에서 열리는 차기 월드컵을 기약할 수 있다. 그때 만으로 35살이 된다. /연합뉴스



혼다 게이스케(32-CF파주)가 일본 축구대표팀을 패배 위기에서 구하고 아시아 축구사의 한 페이지를 새로 썼다.

혼다는 25일 세네갈과 치른 2018 국제축구연맹(FIFA)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H조 2차전에서 일본이 1-2로 끌려가던 후반 33분 동점골을 터트렸다.

후반 27분 가가와 신지와 교체된 그라운드를 밟은 지 6분 만이다. 세네갈 수비가 흐트러진 상황에서 이누이의 다카시의 패스를 받은 혼다가 골문 앞에서 침착하게 왼발로 마무리 지었다.

혼다의 동점골로 결국 2-2로 비긴 일본은 1승 1무로 세네갈과 함께 조 공동선두를 지게 16강 진출

혼다 "내가 亞역사"

월드컵 4골...최다골 신기록

출 꿈을 부풀렸다.

이승리로 일본은 월드컵 역사에서 남미 국가를 꺾은 첫 번째 아시아 팀으로 이름을 올렸다.

혼다는 세네갈전 득점으로 일본은 물론 아시아 축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우선 월드컵 3개 대회 연속 득점을 올린 첫 일본인 선수가 됐다. 혼다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2골,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1골을 넣었다. 월드컵 통산 9경기에서 4골을 터뜨린 혼다는 아시아 선수 최다골 신기록도 세웠다.

혼다는 이번 대회 전까지 통산 3골로 우리나라의 박지성과 안정환, 호주의 팀 케이힐,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미 알 자베르 등과 아시아 선수 월드컵 최다골 기록을 함께 보유하고 있었다.

러시아에서 두 경기 모두 벤치에서 시작했으나 혼다는 특급 조커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연합뉴스

양현종, 1300 탈삼진 도전!

KIA, SK·두산 원정 6연전 오늘 선발...이범호 3000루타-4·1100타점 -9

T 타이거즈 전망대

KIA 타이거즈 양현종이 6월 부진을 날리기 위한 무대를 갖는다.

원정 9연전 길에 오른 KIA가 지난 주말 고척을 거쳐 문학으로 자리를 이동했다. 26일부터 SK와이 번스와 주중 3연전을 치르는 KIA는 주말에는 잠실로 가서 두산 베어스와 상대한다.

양현종에게 눈금이 쏠리는 한 주다. 양현종은 26일 선발로 나와 산체스와 파워 싸움을 한다. 정상 로테이션상으로는 7월 1일 두산 경기까지 책임지게 된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 양현종의 6월이었다.

6월 4경기에 나온 양현종은 4.39의 평균자책점으로 1승 2패를 거두는 데 만족했다. 2.93의 평균자책점으로 4승 1패를 수확했던 5월 페이스와는 다르다.

탈삼진/볼넷 비율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5월 5경기에서 31개의 탈삼진을 뽑아낸 양현종은 사사구는 9개로 묶였지만, 6월 4경기에서는 탈삼진 개수가

순	팀명	경기	승	무	패	승률	게임차
1	두산	74	50	0	24	0.676	0.0
2	한화	75	44	0	31	0.587	6.5
3	LG	78	43	1	34	0.558	8.5
4	SK	74	40	1	33	0.548	9.5
5	KIA	73	36	0	37	0.493	13.5
6	넥센	78	38	0	40	0.487	14.0
7	롯데	73	33	2	38	0.465	15.5
8	삼성	77	34	1	42	0.447	17.0
9	KT	76	29	1	46	0.387	21.5
10	NC	76	27	0	49	0.355	24.0

17개로 뚝 떨어졌다. 사사구는 6개를 남겼다. 3개의 피홈런 등 특유의 매서움이 떨어진 모습이다.

KIA 마운드의 내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불펜진에 힘이 붙었다. 마무리 윤석민이 지난주 KIA가 거둔 3승에 모두 역할을 하는 등 뒷심도 좋아졌다.

불펜진 난조 속 이닝에 욕심을 보여왔던 양현종



에게는 부담을 덜고 초반 싸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체력 싸움이 변수가 되는 시기가 찾아온 만큼 컨디션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

양현종은 26일 경기를 통해 통산 11번째 1300탈삼진에 도전한다. 앞으로 두 명의 타자를 더 삼진으로 돌려세우면 1300탈삼진이 채워진다.

5년 연속 100탈삼진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앞으로 11개의 탈삼진을 추가하면 통산 14번째 5년 연속 100탈삼진 기록이 작성된다. 5년 연속 10승(통

산 12번째)에는 2승이 부족하다.

타석에서는 베테랑들의 도전이 이뤄진다.

이범호가 kt 이진영과 통산 12번째 3000루타 주인공 공을 놓고 다투고 있다. 이진영이 2997루타, 이범호가 2996루타에서 한 주를 시작한다. 또 이범호는 9타점을 더하면 통산 8번째 1100타점도 이루게 된다.

최형우도 100안타 기록을 준비하고 있다. 9개의 안타를 추가하면 최형우는 통산 6번째 11년 연속 100안타 기록을 세우게 된다. /김여울 기자 wool@

매일 기록쓰는 '추'

37경기 연속 출루 '개인 최다'

개인 최고 기록을 넘어서고도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는 출루 행진을 멈추지 않았다.

추신수는 25일 열린 2018 미국프로야구 메이저 리그 미네소타 트윈스와의 방문경기에 1번 타자 좌익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1안타 1볼넷으로 활약했다. 6월 14일 휴스턴 에스트로스전에서 시작한 출루 행진은 37경기째 이어졌다.

그는 24일 미네소타전에서 36경기 연속 출루에 성공해 자신의 종전 기록(35경기)을 넘어섰다. 다시 출루에 성공하면서 추신수의 연속 경기 출루 기록은 '37경기'가 됐다.

첫 타석부터 안타가 나왔다. 추신수는 1회초 첫 타자로 나서 상대 선발 호세 베리오스의 시속 150km 빠른 공을 받아쳐 중견수 쪽으로 향하는 2루타를 쳤다. 추신수의 올 시즌 17번째 2루타다.

추신수는 3회 볼넷을 끌라 두 타석 연속 출루에 성공했다. 그러나 5회 잘 맞은 타구가 1루수 직선타가 되고, 8회에는 1루 땅볼에 그쳐 멀티 히트(한 경기 2안타 이상) 달성에는 실패했다.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279에서 0.280(293타수 82안타)으로 조금 올랐다. /연합뉴스